



설기현·이동국 풀타임 뛰었는데

공격 포인트 없어 아쉬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리그 컵대회인 칼링컵에서 2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을 펼쳤지만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이영표(30·토트넘)는 엔트리에서 빠져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태극전사간 시즌 첫 맞대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동국은 27일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토트넘과 2007~2008 칼링컵 3라운드(32강) 원정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 교체 없이 90분을 모두 소화했다. 잉글랜드 진출 후 첫 골을 터트리며 2-0 승리를 안겼던 지난달 30일 리그1(3부 리그) 소속 노샘프턴 타운과 2라운드에 이어 대회 2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이다. 주전 공격수들의 줄부상으로 일찌감치 선발 출전을 예약했던 이동국은 활발한 볼놀림으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혔고, 동료들 활용된 팀 플레이도 돋보였다. 상대의 세트플레이시 최종 수비에 가담하는 등 공·수에 걸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팀이 전반적으로 토트넘의 파상공세에 밀리면서 어렵게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하고 0-2 패배를 지켜봤다. 설기현(28·풀럼)은 볼턴 원더러스와 홈 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이적 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뛰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 23일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풀럼 입단 후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던 설기현은 이날도 동점골에 한 몫 했다. 하지만 풀럼은 연장 후반 7분 스텔리오스 지안나코풀로스에게 결승골을 얻어맞고 1-2로 패해 4라운드 진출이 좌절됐다.

풀럼의 설기현이 27일 열린 볼턴 원더러스와의 2007~2008 칼링컵 3라운드(32강) 홈 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더로 출전, 크로스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들즈브러의 이동국이 27일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토트넘과 칼링컵 3라운드(32강) 원정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비디오 판독 도입

판정 시비 없어지나

프로배구에서 비디오 판독의 도입 등으로 판정 시비가 앞으로 사라질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8일 경남 마산에서 개막하는 KOVO컵 대회에서 비디오 판독을 시험적으로 도입한 뒤 오는 12월 2007~2008 V-리그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부심을 통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고 경기감독관, 심판감독관, 부상 등 모두 3명이 중계방송 화면을 되돌려 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린다. 테니스 등 국제대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디오 판독이 국내 프로스포츠 구기종목에 도입되기는 농구에 이어 두번째.

한 팀이 한 차례만 요청 가능 불필요한 항의·오해는 줄 듯

프로배구에서는 지난 시즌까지 플레이오프 등 중요한 경기에서 판정을 둘러싸고 강력한 항의가 계속됐고 비디오 판독을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동안 공격수가 때린 스파이크가 상대 블로커의 손을 맞고 아슬아슬한 지 등을 놓고 선수들이 경기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비디오로 분석하면 손가락의 움직임 등 미세한 장면을 느린 화면으로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항의나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또 경기마다 한 팀이 한차례 밖에 요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경기가 지연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KOVO는 이번이 경기 지연에 따른 징계를 강화해 판정 시비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주심은 경기진행에 불만을 품은 선수나 코칭스태프가 코트에서 이탈한 뒤 부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거나 코트 안에서 판정 불만으로 5분 넘게 경기 속행을 거부하면 부전패를 선언할 수 있다.



비너스, 구속 201km 강서브

27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한솔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단식 2회전에서 '흑진주' 비너스 윌리엄스(세계랭킹 9위·미국)가 타미린 타나수간(90위·태국)에게 강서브를 넣고 있다. 윌리엄스는 이날 201km짜리 강서브를 앞세워 2-0(6-2 6-1)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28일>

- ▲2007 메이저리그<뉴욕 양키즈 : 템파베이>(08 : 00·Xports)
- ▲2007 메이저리그<콜로라도 : LA다저스>(11 : 00·Xports)
- ▲2007 프로배구대회<현대건설 : 도로공사>(16 : 00·KBS N SPORTS)
- ▲2007 프로야구 <현대 : 기아>(18 : 00·KBS N SPORTS·MBC ESPN)

성남, 시리아 꺾고 4강행

알 카라마 2-0 완파 AFC 챔피언스리그

K-리그 챔피언 성남 일화가 적지에서 알 카라마(시리아)를 완파하고 2007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성남은 2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시리아 후스의 칼레드 빈 알 왈리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 2차전에서 전반 9분 브라질 용병 모파의 선제골과 후반 25분 교체 멤버 김동현의 추가골로 지난 대회 준우승팀 알 카라마를 2-0으로 제압했다. 지난 19일 탄전 홈구장에서 열린 8강 1차전에서 짜릿한 2-1 역전승을 일궈낸 성남은 이로써 8강 홈앤드어웨이 1, 2차전에서 2전 전승(득 4, 실 1)으로 준결승에 올랐다. 성남은 10월3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탄전종합운동장에서 전북 현대를 누르고

올라온 J-리그 챔피언 우라와 레드(일본)와 준결승 1차전을 벌인다. 2차전은 10월24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원정 경기로 펼쳐진다. 2004년 이 대회 결승에서 알 이티하드(사우디 아라비아)에 져 준우승에 머물렀던 성남은 3년 만에 아시아 클럽축구 정상에 재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 또 K-리그 팀 중 유일하게 4강에 살아남아 작년 전복에 이어 K-리그의 대회 2연패에도 도전장을 낸다. 성남은 전반 6분 페라스 에스마일의 헤딩슛을 김용대가 막아낸 성남은 경기 시작 9분 '돌아온 K-리그 특점왕' 모파가 그림같이 휘어지는 프리킥을 골문 오른쪽 구석에 꽂아넣어 기선을 잡았다. 한편 알 와다(UAE)는 알 힐랄(사우디)과 1-1로 비겼지만 원정 다득점에서 앞서 4강에 합류했다. 이 대회 4강은 성남-우라와, 알 와다-세파한(이란)의 대결로 압축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홍만, 내일 마이티 상대 복수전

'테크노 콜리앗' 최홍만(27·사진)이 29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개막전 16강 토너먼트'에 출전, 자신에게 생애 첫 KO 패를 안긴 '볼주머' 마이티 모(34·미국)를 상대로 복수전을 펼친다. 지난 3월 K-1 대회 2라운드에서 모의 흑한방에 KO로 쓰러진 최홍만은 그 때 수모를 6개월 만에 되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모를 꺾으면 12월 일본에서 열릴 8강 토너먼트 출전권을 따낸다. K-1월드GP가 한국에서 열림에 따라 자동출전권을 따낸 최홍만은 "복수할 기회가 왔다.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 만큼 꼭 이기고 싶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홍만은 모와 경기에서 똑같은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3가지의 방어 기술을 연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왼손으로 가드를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 펀치에도 충격을 받지 않고



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빠른 펀치를 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 최홍만은 모와 대결에서도 기습적인 펀치를 내주며 그대로 쓰러졌다. 모를 쓰러뜨릴 공략법으로는 나직을 집중 연습했다. 모가 방심하고 들어올 때 역습으로 나직을 날려 KO 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굿리지전에서 사우스포(왼손잡이 자세)로 변신, 그 위력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모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만은 없다. 2004년 K-1에 데뷔한 모는 187cm에 127kg으로 최홍만(218cm·160kg)에 비해 신체적으로 불리하지만 강력한 훅이 강점이 베테랑 파이터다.

영양권함권별 드립니다

영양권함권별 드립니다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일 판매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일 판매

건물매매

건물매매

부동산 판매 전문회사

부동산 판매 전문회사